“날마다 읽고 쓰면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



처음쓰는대장경
곽철환 지음
시공사 펴냄
2만원



사경에 열중하는 불자들. 현대불교신문 DB사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국내 최초의 대장경 필사집, 필요 구절 선별
“안정에 이르기 위해 지금 불교 속으로 간다”
필사 좋도록 경전 구절 옆에 쓸 공간 마련해

우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열심이다. 눈앞에 펼쳐진 길을 곧이 걸으면서, 높이 우뚝 솟은 산을 따라 오르면서, 눈을 감고 명상의 세계에 고요히 침잠하면서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궤도를 조율한다.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다는 불혹에도,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순에도,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고희에도 우리는 자신을 다스린다.

이처럼 우리가 무릇 평생 자신을 다스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시도 때도 없이 줄줄이 일어나 과거로 가서 자책과 회한과 원망에 빠지고, 미래로 가서 스스로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 낸다.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길 바라는 탐욕으로 분노하고 괴로워한다. 자신의 색안경으로 대상을 끊임없이 ‘좋다/싫다, 예쁘다/못나다, 깨끗하다/더럽다’ 로 이분화하고 애착과 혐오를 반복하며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곧 안정에 이르는 길을 찾아 가는 것이다. 그 안정에 이르기 위해 지금 우리는 불교 속으로 가야 한다.

이 책은 불경을 집대성한 대장경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구절을 선별해 엮은 필사집이다. 대장경은 방대하지만 널리 익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은데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간추리면 그 분량은 손안에 들어온다. 그 내용을 매일 읽고 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안정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얽어매는 탐욕과 집착과 분별의 무더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절, 생각의 그림자를 걷어 내는 구절, 마음을 닦고 삶의 행로를 바로잡게 하는 구절들을 날마다 읽고 쓰다 보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정에 이르는 길에 닿을 것이다.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필사의 시간’

자신을 다스리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필사는 인생에서 꼭 한번 해봐야 할 경험이다. 준비물은 종이와 펜, 베껴 쓸 글만 있으면 될 만큼 간소한데, 막상 시작하면 수십 년 글자를 쓴 사람도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균형 잡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펜을 쥔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면 글자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종이와 손의 방향, 종이와 펜의 각도가 적절치 않아도 매끄럽게 써지지 않는다. 적절한 힘으로 자음과 모음을 붙여 글자를 완성하고, 쉼표와 마침표를 더해 문장을 완성하는 동안 그 사이를 채우는 여백만큼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의 시간이 쌓인다.

또한 필사는 애쓰지 않아도 마음에 새기는 힘이 강하다. 써야 할 글을 눈으로 한 번 읽는다. 손으로 움직여 쓰면서 마음속으로 읽거나 또는 입으로 소리 내어 또 한 번 읽는다. 쓰는 중간중간 혹은 다 쓴 다음에는 제대로 썼는지 번갈아 살피며 다시 한 번 읽는다. 한 번 쓰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 읽어야 하는 만큼 단단히 힘쓰지 않아도 써 내려간 글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 우리는 늘 아등바등한다. 쉬면서 숨을 고르고 싶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한다. 계속한다고 더 좋아지고 거듭난다는 보장이 없어도 치열하게 밀고 나가느라 애를 쓴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균형 잡기와 적당히 힘쓰는 법을 터득한다면 불안정한 삶에서 자신을 다스리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필사다.

필사의 힘과 아름다운 경전의 결합

이 책 〈처음 쓰는 대장경〉은 필사의 힘과 우리가 가진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경전을 결합한 책이다. 대장경에서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가려 뽑아, 다음의 10가지 내용에 따라 분류했다. 물거품 같고 뜬구름 같고 번개 같은 몸에 대한 바른 통찰, 탐욕과 집착과 분별의 무더기를 벗어나 평온에 이르는 법, 괴로움과 그것을 소멸하는 진리, 헛된 것을 버리고 삶을 ‘지금 이곳’에 두는 법, 생각의 그림자를 걷어 내는 법, 마음을 닦는 노력, 진정한 배움, 불보살의 세계와 열반 속으로 가는 길, 붓다의 유언. 그러므로 〈처음 쓰는 대장경〉의 경전 구절을 필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과 생각, 삶의 행로와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를 안정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책은 필사하기 좋도록 경전 구절 옆에 따라 쓸 공간을 마련했다. 필사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순서대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부터 시작하면 된다. 시간을 정해 두고 쓸 필요도 없다. 아침에 읽고 저녁에 써도 좋고, 하루 중 자신을 다스리고 안정을 찾고 싶은 시간에 읽고 써도 된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반복해 써도 좋다. 다만 날마다 읽고 쓰라. 불교인은 진정한 배움을, 쓰는 행위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은 진정한 안정을, 지나온 삶을 살피고 나아갈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저자 곽철환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붓다의 가르침을 문자로 대중에게 소개한 지 20여 년, 지금은 북한산 자락에 터를 잡고서 책 읽고 글 쓰고 산에 오르며 생의 후반기를 다듬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불교 길라잡이〉 〈시공 불교사전〉 〈불교공부사전〉 〈불교의 모든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한 권으로 읽는 불교 고전〉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핵심 아함경〉 〈금강경〉 등이 있다.

해인사승가대 학인 솔직담백 출가기



집떠나사는즐거움
해인사승가대학 지음
소리여행 그림
불광출판사 펴냄
1만8천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삶의 목적은 한 가지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는 걸까. 살다 보면 인생은 행복보다 불행에 더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스스로를 위로하고 적당한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게 보통의 삶이라면, 평범함을 거부하고 끝끝내 행복의 완성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 중 하나가 출가수행하며 살아가는 스님들이다. 이 책은 겉보기에는 단순히 사는 듯 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사람들, 진정한 행복을 찾아 가진 것 다 버리고 집 떠나와 머리 깎고 사는 ‘찐’ 행복 바라기들의 속마음 100% 출가 이야기다.

왜 하필 스님 되었냐고요?…“행복해지고 싶어서”

생존에 필수적인 일을 제외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다. ‘행복추구’. 이 책을 쓴 해인사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출가해서 머리 깎고 사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배고파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법당에 들어간 사람, 20대에 희망퇴직을 당하고 출가를 결심한 사람,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방황하다가 은사를 만나 출가한 사람 등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행복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했다. 연애도 못 해, 결혼도 못 해, 맛난 음식도 맘껏 못 먹어, 부와 명성도 쌓기 힘든데, 출가해서 사는 게 어째서 행복을 위한 일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스님들이 찾는 행복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랑, 돈, 명예처럼 수시로 변하는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잠깐의 행복감이 아닌 변치 않는 삶의 본질(진리)을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스님들이 바라는 참 행복이다.

“내일 일은 나도 몰라요. 지금 좋으면 된 거죠.” 이런 하루살이 인생 같은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공감하기 힘든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진지하게 자기 삶의 무게를 고민하는 사람,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얻은 찰나의 즐거움 끝에 허무함과 덧없음을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깊고 오래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스님들의 이야기가 마음 깊이 와닿을 것이다.

집 떠나면 개고생…“집 떠나 사는 재미 있다”

천천히 걷고 먹고 마신다. 항상 말과 행동을 차분하게 하고, 좋든 싫든 감정 기복과 표현이 적다. 사계절 내내 민머리를 하고 칙칙한 색깔의 옷을 입고 검은색 아니면 흰색 고무신을 주로 신는다. 인적이 드문 산중에 살면서 밤 9시가 되면 불 끄고 잔다. 스님에 따라, 생활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스님 생활이 이렇다. 그래서 ‘스님’ 혹은 ‘스님의 삶’ 하면 떠오르는 첫인상은 단연 ‘재미없음’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단 하루만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면 심심하다 못해 좀이 쑤셔서 안절부절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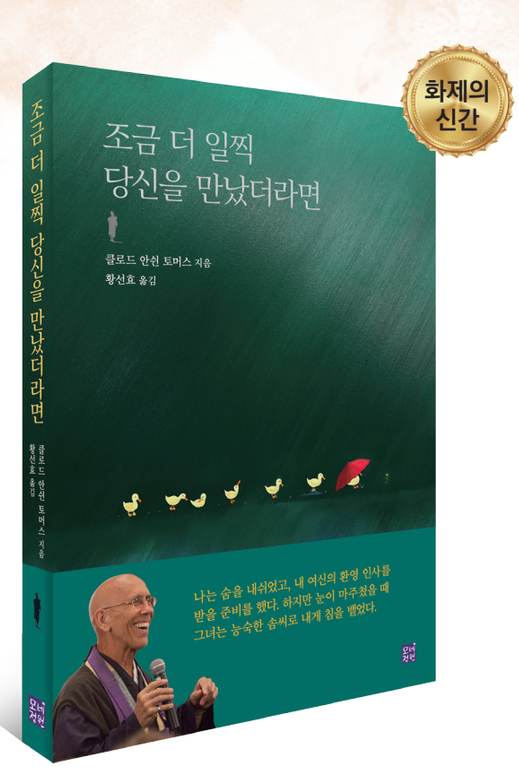
그런데도 스님들은 즐겁다고 말한다. 즐거움을 넘어 매 순간 삶의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과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스님을 빼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쓴 학인스님들도 그랬다. 출가하기 전까지 부처님, 절, 스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인연에 따라 출가한 뒤 직접 살아보니 밖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게 공통된 이야기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든, 억지로 애쓰고 꾸미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사니까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다.

출가 생활이 마냥 편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특히 어엿한 스님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할 게 많은 학인스님들의 하루는 고단함 그 자체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공부와 수행, 사소한 일 하나까지 규율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불편함, 거기에 단체생활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굳이 머리를 밀지 않아도 저절로 머리카락이 빠질 것 같은 게 스님들의 일상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자. 스님도 사람이고 절도 사람 사는 곳이다. 스님으로 사는 건 생각만큼 느슨한 일이 아니다. 사람 모인 곳은 다 그렇듯 스님들 생활에도 희로애락이 공존한다. 성격과 생각이 서로 달라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다만 세속에서는 다툼과 잘못이 갈라섬의 원인이 되지만 절에서는 오히려 결속과 자기 성장의 토대가 되어준다.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먼저 참회하고, 자신의 모난 곳을 다듬고 깎아서 원만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계기로 삼기 때문이다. 순간순간이 수행인 삶, 겉멋이 아닌 속멋을 가꿔나가는 삶, 여기에 스님으로 사는 즐거움의 참뜻이 숨어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출가 이야기

이 책의 주인공인 스님들은 처음부터 스님이 아니었다.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좇아서 불교에 귀의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이 존재의 문제를 탐구했고 마침내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내면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다. 출가는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모조리 버려야 할 만큼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스님이 된다는 건 특별한 선택이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나아감이다. 하지만 간절히 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없는 기회의 장이다. 김주일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